



보도 일시	2022. 6. 29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6. 29.(수) 09:00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장 심현우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 박수민 (sumin@korea.kr)

「신(新)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」 개최

-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향 -

- 기획재정부는 7월 5일(화) 14:30, 수출입은행에서 「신(新)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」를 개최한다.

< 「신(新)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」 개요 >

- ▶ (주최) 기획재정부
- ▶ (일시·장소) 7.5일(화) 14:30~16:30, 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(대면 + 유튜브 중계)
- ▶ (주제)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향
 - (세션 ①)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 필요성
 - (세션 ②) 외국환거래법 개정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

- 금번 세미나는 학계 및 연구기관, 시장참여자들과 **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**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.

- 세미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제1차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.

-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.

-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, 경제·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을 발제하고,
 - 국제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삼모 동국대학교 교수,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,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그리고 김웅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.

-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(新) 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,
 -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,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.
- 현장 참석자를 위해 7월 4일(월)까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, 당일(7.5일) 유튜브(Youtube)*로 실시간 중계 되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.
 - *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 팝업창 통해 QR 접속 또는 유튜브 (www.youtube.com) 접속 → 검색창에 '신외환법' 또는 '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' 입력 → 참석

※ <참고> 「신(新)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」 프로그램

※ 7월 5일(화) 행사종료 이후 세미나 결과보도자료 배포 예정

참 고**「신(新)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」 프로그램**

시 간	프로그램	연사 및 패널
14:10-14:30		참석자 등록
14:30-14:35	개회식	개회사 : 기획재정부 제1차관
14:35-15:30 (55 분)	제1세션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 : 윤덕룡 박사(한국개발연구원) ■ 발표(30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강동수 박사(한국개발연구원) ② 이승호 박사(자본시장연구원) ■ 토론(25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강삼모 교수(동국대, 국제금융학회장) ② 성태윤 교수(연세대, 국제금융학회 부회장) ③ 박해식 박사(한국금융연구원) ④ 김응철 부행장(우리은행)
15:30-16:30 (60 분)	제2세션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 : 윤덕룡 박사(한국개발연구원) ■ 발표(30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김성욱 국제금융국장(기획재정부) ② 정순섭 교수(서울대학교) ■ 토론(30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관호 교수(고려대학교) ② 이금호 변호사(김·장 법률사무소) ③ 김효상 박사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④ 이재현 본부장(미래에셋증권)